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 8. 13.(목)

독거 어르신 지역 인적안전망이 지킨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·지원체계 현장 점검

- 고독사 위험군 안부 확인 강화 현장 찾아 대응상황 점검 -

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8월 13일(목) 오후 4시 경상북도 구미시청을 방문하여 고독사 위험군 발굴·지원 현황을 점검하고, 지역 인적안전망인 ‘행복기동대원*’과 함께 구미시 송정동에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을 찾아 건강과 안전을 살폈다.

* 고립 예방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으로 지방정부가 구성·운영

이번 현장 방문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고독사 위험군 등 고립 가구에 대한 지방정부의 보호 및 서비스 지원 현황을 확인하고,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일 「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」을 수립하고, 지방정부에 폭염 대비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한 안부 확인과 온열질환 예방 등 행동요령 안내를 강화하도록 한 바 있다.

구미시청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 현황, 고립 가구 안부 확인 추진 실적 등을 공유하고, 폭염에 따른 건강 및 생활환경 위험 요인, 연락 및 방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 등을 논의하였다.

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인적안전망인 행복기동대원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폭염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고독사 위험군 등 취약가구에 대한 안부 확인을 빈틈없이 이어가 달라고 당부하였다.

이어 행복기동대원과 함께 홀로 계신 어르신 가구를 방문하여 실제 안부 확인 서비스 제공 과정을 확인하였다. 또한 폭염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별 현장 대응 절차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.

이번에 확인된 현장 의견은 향후 고립 위험군 보호 및 안부 확인 정책에 반영하고, 계절적 위험 요인에 대응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.

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“폭염 상황에서는 고립된 가구가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세심한 관심과 지속적인 안부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 라고 강조하며, “지역사회 인적안전망이 위기가구의 안전을 살피고,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” 라고 밝혔다.

<붙임> 현장 방문 개요

담당 부서	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	책임자	과 장	서일환 (044-202-3120)
		담당자	사무관	정진경 (044-202-3136)



□ **방문 개요**

- (목적) 폭염 특보 상황 지속에 따라 폭염에 특히 취약한 고독사 고위험군 안부확인 상황을 점검하고,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
- (일시) '26.8.13.(목) 16:00 ~ 17:00
- (장소) 경북 구미시청, 안부확인 가구
- (주요 참석자) (보건복지부) 사회복지정책실장, 지역복지과장,
(경북 구미시) 사회복지국장, 복지정책과장, (인적안전망) 행복기동대원
- (주요 내용) 고독사 위험군 발굴·지원 현황, 안부확인 가구 방문, 인적안전망(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)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

□ **세부 일정**

시간		주요 내용	비고
16:00~16:40	40'	▸ 간담회	
16:40~16:50	10'	▸ 이동	
16:50~17:00	10'	▸ 안부확인 가구 현장동행	
17:00~		▸ 마무리	-